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상생협약 진안군, 핵심 현안 지원 요청

대통령 정책특보 만나 양수발전소 유치·국도 26호선 도로개량 건의

장수군-지역농협 '맞손'... 기본소득 매출 일부 지역사회 환원 기금 출연

장수군은 25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장수농협·장계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김용준 장수농협조합장, 박정용 장계농협조합장, NH농협장수군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과 연계한 지역내 소비 촉진과 상생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져 군민 복리 증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수군과 2개 농협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및 장수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상호 협력하고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 기금으로 출연해 환원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면지역 하나로마트 조건부 사용 허용과 지역사회 환원활동을 구체화했고 군과



장수군은 25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장수농협·장계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농협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한 소비가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장수군과 2개 농협은 사업 관련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군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운영 전반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공동 점검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 혜택이 다시 군민들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며 "이번 지역 농협과의 협약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국동계체육대회 선전 응원”

무주군, 출전 선수단 현장 격려

무주군은 지역 내 초·중·고와 무주군청 직정운동경기부, 일반 부문 소속 선수 등 총 78명(지도자 11명)이 제1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 중이라고 밝혔다.

출전 종목은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59명, 스키 알파인 7명, 스노보드 10명이다.

바이애슬론 선수들은 집단출발과 개인전, 혼성계주 등에 출전한다. 크로스컨트리는 클래식과 프리, 계



주, 스프린트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스키 알파인은 슈퍼대회전과 대회전, 회전 종목에 출전한다. 스노보드는 하프파이프와 프리스타일, 평행 대회전에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 첫날인 25일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 전복바이애슬론연맹과 전복스키·스노보드협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경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를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

황인홍 군수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보여줬던 동계올림픽 후원이 무주군 선수들을 통해 다시 한 번 빛나길 바란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계 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손충기 기자

무주군, 난임 부부 대상 '한방 치료' 지원

무주군이 난임 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이 함께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치료는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과 침구, 뜸 등을 활용한 한방 난임

치료를 실시한다. 이후 2개월간의 추적관찰을 포함한 총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다만 사업 참여자는 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 동안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알방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 중인 난

임 부부로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8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포함해 총사업비 3천여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남성 난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등을 함께 추진한다.

/무주=손충기 기자

진안군은 지난 24일 세종 국책 연구단지에서 이헌주 대통령 정책특보 좌관(現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만나 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전춘성 군수는 지역 발전의 추진 동력이 될 핵심 현안 사업의 당위성과 경제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한 주요 사업은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국도 26호선(보통제) 도로개량 등이다.

진안군은 주천면 일원에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지역 수용성 확보와 최적의 입지 조건을 설명하며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원주 소양면에서 진안 부귀면을 잇는 국도 26호선에 대해서는 잦은 사고로부터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사업계획'에 해당 구간의 도로 개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대통령 정책특보좌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군 주요 현안들이 국가 정책과 연계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정책 라인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부스 운영자 사전 교육

진안군은 오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제2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25일 군청 강당에서 축제 부스 참여자 19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제의 안전성·친환경성을 강화하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부스 운영 공통 준수 사항, △떡거리·간식부스 위생 및 가격관리, △농특산물 판매 기준, △축제 식권 정산 절차 등을 안내했다.

무엇보다 가격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모든 떡거리 및 주류는 적정 가격으로 판매하고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설치된 현수막에 일의로 가격을 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최근 일부 지역 축제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논란 사례를 공유하며, 신뢰받는 축제 이미지 구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친환경 축제 조성을 위해 대화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쓰레기 봉투 사용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음식물 전용 수거통도 별도 비치해 깨끗한 축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취약계층노인의치·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모집

진안군은 치아 결손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해 노인의치(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이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강 기능 회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감감 대상자로, 사전 구강검진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지원 내용은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시술은 진안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진안군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3-430-853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 관광 벨트 구축 촉구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이 장수의 정신적 자산인 '백용성 조사'와 천혜의 경관을 지닌 '동화면 벚꽃길'을 연계하여 장수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 관광 벨트'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섭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눈이 되고 사람이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종섭 의원은 "백용성 조사의 역사성과 동화면의 심미성이 결합한다면 장수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장계면 상권 대응 촉구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는 장계면 상권의 부활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남수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순 환경 개선을 넘어선 '공간의 재구성'과 '민관 협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김남수 의원은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역사 자산을 활용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장계면 상권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장수군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력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